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12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범의 골
수상내역	최우수상(충청북도지사상)
작가	문수정
공모분야	시나리오
장르	-
소재	청주아리랑, 까치내전설, 무심천, 호무골
시놉시스	<p>때는 1933년. 14년 전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주인공 백범천이 돌아오며 이야기는 시작된다.</p> <p>범천은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다.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기에 항상 집을 비우는 아버지의 모습과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고역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를 원망해왔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객지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낮이 나간 어머니를 보며 자신은 부모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p> <p>그러던 어머니가 난데없이 새 살림을 차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적극적으로 구애해온 일본인 사업가의 후처로 들어간 것이다. 범천은 울곧은 줄만 알았던 어머니에게 강한 배신감과 염증을 느낀다. 이 사건은 그가 도덕심과 신념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된다. 새 아버지는 범천에게 재능이 있다며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고, 자신을 쫓아 보내려는 것이라 생각한 범천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가게 된다.</p> <p>14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카기 토라우미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한 범천이 고향 청주로 돌아온다. 마을 사람 중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하였으나, 그의 소꿉친구 이원조만은 그를 알아보았다. 일본인 사업가 다카기의 양육으로 들어가는 범천을 보며 실망한 이원조는 그가 자신이 알던 정의감 넘치는 범천이 맞는지 지켜보고자 한다.</p> <p>한편 돌아온 범천은 이미 삶의 모토가 바뀌고, 성격마저 많이 바뀌어있는 상황이다. 어머니를 매몰차게 거부하며,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군수사업을 하는 양아버지의 주선으로 순사가 된다.</p> <p>(-중략-)</p>

시나리오

[제 1화]

프롤로그

#1 물 속.

BGM으로 청주아리랑이 은은하게 깔린다.
한 종류의 현악기만을 이용한 담담한 음색이다.

무언가가 물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
어두운 물속에서 그 형태만이 희미하게 빛난다.
멀리서 실루엣을 비추던 화면이 점점 가까워진다.
얼핏 호랑이 같은 형체가 너울너울 춤추듯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의 형체를 갖춘다.

백범천 : (나레이션) 아버지는 내가 호랑이 춤추던 마을에서 태어난 새끼 호랑이
라고 하셨었지.

(회상 1)

아버지가 자신을 쓰다듬으며 웃던 모습이 떠오른다.
뒤이어 자신과의 큰 다툼 후 아버지의 안타까운 표정도 떠오른다.

그 뒤에서는 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 자애로운 표정이다.

백범천 : (나레이션) 어머니는 늘 모든 걸 알고 계셨다.

어느새 아버지와 화해하고 저녁식사중인 가족.
모처럼 집에 머무는 아버지로 인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회상 2)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이 떠오른다.
배경은 어느 양옥집으로 바뀌어있다.
뒤이어 밤, 창문으로 어머니가 보인다. 먼 곳을 바라보며 배경음인 청주아리랑을 흥

얼거린다.

백범천 : (나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이다. 언제나...언제까지나...

(회상 3)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어린 이원조와 사기가 성인의 모습과 겹쳐지며 아른거린다.

(회상 4)

어린 자신이 돌아보니 아버지가 멀찍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회상 끝)

백범천 : (점점 물 밑으로 가라앉으며 눈을 지그시 감는다.)

어머니, 이제 기다리지 마세요.

화면이 점점 어두워진다.

멀리서 나지막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2 청주시내 저잣거리.

장이 열렸는지 거리가 북적인다. 장돌뱅이들이 자리한 곳에는 지나갈 틈이 없다.

인파를 밀치며 건장한 사내가 모자를 눌러쓰고 지나간다.

사내는 여행에서 이제 막 돌아온 듯 짙어진 짐가방이 묵직하다.

사내에게는 익숙한 거리인 듯하나,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듯 빠른 걸음으로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는 사내. 주인공인 백범천이다.

지나가는 범천의 옆 골목 사이에서 젊은 조선 남성 둘이 걸어 나온다.

두 명 모두 신식 옷차림이 말쑥하다.

한 명은 밝고 쾌활하며, 한 명은 그와 대조되듯 무뚝뚝한 인상이다.

이원조 : (시종일관 밝은 표정과 목소리) 아 글썸, 이 답답한 양반아.

사람이 그렇게 숙맥이어서야 그 나이 먹도록 여자 손이나 잡아보겠는가?

조채운 : (무뚝뚝한 표정) 그게 중요합니까?

이원조 : 아, 남자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

(채운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며) ...농담으로 그렇게 정색할 필요는 없잖아..

저장거리 중심부로 걸어 나오는 그들의 앞으로 범천이 황급히 지나간다.
모자를 눌러써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덩치 큰 실루엣이 이원조의 눈길을 끈다.

이원조 : (범천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으며) 어?

조채운 : (대수롭지 않게) 신여성이라도 지나갔습니까?

이원조 : (눈은 계속 범천의 뒷모습을 향한다.) 아니,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이 지나가서.

범천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진다.

이원조 : (범천이 지나간 쪽에서 여전히 시선을 떼지 못한다. 신중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하다.)

조채운 : 형님?

이원조 : (중얼거리듯) 조 군.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이런 것도 있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이 동네의 ‘평범하지 않은 것’에 주시하는 것.

(다시 쾌활한 표정으로 채운을 돌아본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
내가 확인해보고 오겠네.

범천이 지나갔던 길을 원조가 따라간다.

능숙하게 인파를 헤치는 그의 발걸음은 여유로우나, 정확하고 빠르다.

#3 다카기 저택 앞.

다카기 저택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단아하고 웅장한 기운이 있는 양옥이다.

약간 투박한 디자인의 담장이 견고하고 높다랗다.

들어가지 않고 대문만 바라보며 서있는 범천.

감회가 새로운 듯, 복잡한 표정이다.

한참을 망설이다 문고리를 잡아보는 범천. 손으로 잡아 두드리려 당기자, 의외로 문이 열려버린다. 잠깐 움찔하였으나 이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범천.

막 도착한 원조가 그 뒷모습을 보고 골목으로 황급히 숨는다.

골목에서 저택을 올려다보는 원조.

엿된 얼굴이 어쩐지 낭패감에 젖은 표정으로 변한다.

#4 저택 내 뜰.

당당하게 들어간 범천을 뜰 안에서 잔디를 손질하던 정원사가 발견한다.

정원사 : (당황한 표정, 잔디를 깎던 손을 멈춘다.) 아니, 누구신지...

마침 저택 현관에서 음료를 들고 나오던 가정부도 범천을 보고 놀란다.

가정부 : (약간 높아진 음성으로) 문이 열려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문이 열려있어도
그렇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온답니까?

백범천 : (대꾸하지 않고 멈춰 서서 뜰을 둘러본다.)

가정부 : 아니, 사람이 말하는 것 안 들려요? 당신 누구냐니까?

정원사 : (말리며) 이봐, 손님이겠지. 손님이니까 이리 태연히 들어오시는 것
아닌가. (범천을 향해) 손님, 손님~ 근데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백범천 : (가정부와 정원사 쪽을 잠깐 쳐다보더니, 말없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한다.)

가정부 : 정상이면 저러고 계시겠어요?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이봐요, 끌어내기 전에 누군지 대답해요.

범천이 가정부를 똑바로 쳐다보는 가운데, 정원사는 가정부의 무례한 태도에 가슴
졸인다.

이때 별채 쪽에서 황급히 몸종이 뛰어나온다.

몸종 : (양손을 흔들며) 별채 손님이에요! 별채 도련님!

가정부, 정원사 : (각자 몸종과 범천을 바라보며) 별채 도련님?

가정부 : (범천을 삿대질하며) 10년도 더 전에 쫓겨 갔다던 그 도련님?

정원사 : (가정부를 황급히 제지한다.) 이보게, 말조심하게.

(속삭이며) 쫓겨 간 사람이 지금 여기 있나? 어쨌건 당사자 앞에선 입조심
해야 할 것 아닌가.

(범천을 보며) 아이고, 이거 저희가 몰라봐어서 죄송합니다.

가정부 : (입막음 당한 채 눈이 휘둥그레 범천을 바라본다.) 음음! 음~???

범천은 기분이 상했는지 몸종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준다.

소심한 몸종 또한 범천의 시선에 움츠러든다.

몸종 :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도련님... 잘 돌아오셨어요.

범천이 처음으로 입을 연다.

백범천 : 나는 별채 손님이 아닙니다. 별채에는 일이 없으니 돌아가시오.

몸종 : (물끄러미 범천을 올려보며) 어머님이..기다리세요.

백범천 : 내게 어머니는 없습니다. 나는 다카기 가(家)의 장자, 다카기 토라우미요.
내 집으로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귀가하시기를 기다리겠소.

말과 함께 돌아서서 현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범천.
가정부, 정원사, 몸종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범천의 뒷모습만 바라본다.

가정부 : (낮이 나가서) 음료...저 인간한테 가져가야하나?

#5 다카기 저택 앞.

원조, 심각한 표정으로 대문을 바라본다.

이원조 : (중얼거림) 내가 생각하는 설마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마침 대문을 열고 가정부가 씩씩거리며 나온다.

가정부 : 아니 지가 도련님이면 다야?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원조 : (생각) 도련님? 돌아온 건가?

가정부 : 콧~악 떡 드시다 목이나 매여서 죽어버려라...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암.

이원조 : (생글거리며 다가간다.) 저기...아가씨?

가정부 : (화들짝 놀라며) 어머넛, 세상에나~아니, 착한 내가 그냥 한마디 해봤어요?
그냥 한...마디...근데 누구세요? 아가씨? 나?

이원조 : (능청스럽다.) 그럼요, 이해하죠. 누구나 화가 나는 일은 있으니까요.

가정부 : (멋쩍게 웃으며) 어..어머나.

이원조 : (은근슬쩍 가정부 쪽으로 손을 내민다.) 이렇게 어린 아가씨가 화라니...
참 너무한 세상이죠. 어찌됐어요. 옛 말에 대나무 숲에서 한바탕 떠돌고
흘러버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부 :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잊지 못한다. 아무래도 부끄러운 마음과 어딘지
설레는 마음이 뒤섞인 모양새이다.)

이원조 : 어떠신지요? 대나무 숲에 다녀오시겠어요?

뒤이어 나온 정원사, 다정히 걸어가는 가정부와 원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심한
듯 한숨을 쉰다.

정원사 : 대나무숲 어찌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딱봐도 나오는 대로 지껄였구만,
아줌마가 헤프긴.

정원사, 그대로 미심쩍은 표정으로 둘이 지나간 곳을 바라본다.

#6 요정의 깊은 방.

군수사업가 다카기와 경시정 와타나베만이 어두운 방에 자리하고 있다.

은밀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는지 분위기가 무겁다.

요정임에도 문 밖에 순사 한명 외에는 시종조차 없다.

다카기 : (찾잔을 내려놓는다.) ..그런 연유로 쓸 만한 녀석입니다.

본래 조선인이기도 하고.

와타나베 : 선생이 그렇게 말하신다면야. 어차피 다 알려줄 생각도 없습니다.

다카기 : 당연한 일입니다. 신용하실 필요는 없지요. 그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와타나베 : (더욱 은밀히) 의심 가는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하 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시 고개를 들며) 선생이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다카기 : 이해하다마다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와타나베 : 모든 것은 천황폐하를 위해서.

다카기 : 물론이죠. 그걸 위한 사업이니까요.

경시정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와타나베 : (미소지으며) 나는 받은 만큼은 합니다.

와타나베가 크게 손짓하더니 방 벽을 세 번 두드린다.

얼마 안 있어 두 개의 방을 이어주는 미닫이문이 활짝 열린다. 좁고 어두운 방이 순식간에 밝고 큰 방으로 변모한다. 뒤이어 기녀들이 사뿐사뿐 들어온다.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기라는 이름의 기녀에게 와타나베는 눈을 떼지 못한다.

탐욕스러운 눈빛이다.

잔잔한 음악이 시작되고 두 일본인의 ‘비즈니스’에 관한 대화를 위하여 작은 술 판이 벌어진다.

#7 다카기 저택 앞. 날이 많이 어두워져있다.

어느새 이원조는 다시 다카기 저택 앞으로 돌아와 있다.

당당하게 저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택 근처 골목에서 저택을 훑쳐보는 모양새이다.

아주 싸가지 없는 도련님이 돌아왔다는 가정부의 말을 곱씹어본다.
그 싸가지 없는 도련님의 외견이 자신이 아는 친구가 맞는지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범
천은 오늘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이원조 : 일본놈 양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야 들었지만...

너무 무심했나, 하는 마음에 자책감이 든다.
그 때 마침 저택으로 돌아오는 다카기.
저택 문이 열리며 주인을 맞는다.

몸을 더욱 숨기고 상황을 주시하는 원조. 이내 다카기를 알아본다.

이원조 : (이를 으득하고 간다.) 하필이면 다카기 놈이냐 말이나...범천.

원조의 심각한 표정이 클로즈업되며 화면 전환.

#8 다카기 저택 내 응접실.

범천은 몇 시간이고 양아버지인 다카기를 기다린다.
단단한 가죽소파가 있지만 일본식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
테이블에는 가정부가 놓고 갔는지 찻잔이 놓여있으나 내용물은 차갑게 식어있다.
조명은 전체적으로 어둡다.

범천이 비록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있다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는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오후에 어머니가 응접실 창문을 통해 자신을 보고간 것도 알고 있다.
어머니는 한참을 범천을 바라보다 이내 별채로 돌아간 모양이지만, 그 표정은 싸늘
했다.

사람이라면 그 표정에 마음이 아파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의외로 범천은 아무렇
지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은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범천은 무생물 같은 표정으로 그저 무릎 꿇고 앉아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며 밝은 불빛이 어두운 응접실로 따라 들어온다.
응접실이 갑작스레 환해지며, 다카기가 들어선다.
무릎꿇은 범천을 보더니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다가간다.

다카기 : (범천을 덩씩 안으며) 어서오너라, 내 아들. 언제부터 기다린게야.

백범천 : (덤덤히 다카기가 하는대로 내버려둔다.)

다카기 : 14년 만이로구나. 왜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니.

방학 때마다 귀국하라고 네 어미를 통해 연락했거늘.

백범천 : (무심히)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다카기 : 그럴 리가. 뭐 그런거야 이제 아무래도 좋다.

잘 돌아왔다. 이제 내가 너를 적극 지원해주마.

백범천 : (담담한 표정으로 다카기를 바라본다.)

다카기 : 짐은 풀었느냐? 식사는? 저녁먹고 서재로 오거라.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

다카기가 먼저 응접실을 나간다.

뒤이어 가만 서있던 범천이 짐을 들고 따라 나간다.

#9 요정 내 연회장

어두운 밤. 선선한 가을날씨에 국화가 만개하였다. 흰 국화가 요정의 불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난다.

요정의 야외 연회장에서는 연회가 한창이다. 대부분 일본인들이며 간간히 조선인이 섞여있으나 쉬이 분간은 되지 않는다. 좀 더 비굴한 쪽이 조선인이라는 짐작 밖에
는.

요정의 기녀가 모두 나온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는 춤을 추고, 어느 곳에서는 악기를 연주한다. 대부분의 기녀들은 손님 옆에 붙어 술을 따르거나 말상대가 되어주고 있다.

한 구석에 앉은 사기도 누군가의 상대가 되고 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기는 그저 술을 따르고,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어줄 뿐이다. 그녀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손님은 기회를 틈타 그녀에게 파렴치한 짓을 할 생각뿐이다. 파렴치한 행위의 강도는 점점 세져 그녀가 불쾌감을 드러낼 무렵, 후원의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기녀1 : (그녀의 손님에게) 단정한 도련님이 술에 취해서 난동인가 보옵니다.

기녀2 : 또 그분이셔? (웃으며) 그분은 종종 저런답니다. 귀한 집 자제분이신 것 같
은데.. 아니 그러니 더더욱 저러시는 건지.

손님1 : 아냐, 연회에는 소란도 있어야 재미가 있지.

손님2 : 그래, 뭔가 활력이 있지 않은가? 하하하. 젊은 혈기 말일세, 혈기!

기녀1 : 어머니. 그 저희도 그 혈기 나눠받으러 가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 여유롭게 몰려들어 구경 중이다.
사기에게 파렴치한 행위를 하던 손님 또한 관심을 돌려 소란을 보러 이동한다.

소란을 틈타 사기는 슬쩍 후원으로 빠져나간다.

#10 다카기 저택 내 서재.

다카기. 자신의 책상에 앉아있다. 그 앞에는 책이 한 권 펼쳐져 있다.
범천이 그 앞에 열중쉬어를 한 채 서있다. 군기가 바짝 잡힌 모습이다.

다카기 : (책장을 넘기며) 네 어미는 만나보았느냐?

백범천 : ... (바닥만 쳐다본다.)

다카기 : 이제 그만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백범천 : ... (표정에 변화 없다.)

다카기 : (책에서 눈을 떼어 범천에게 눈을 돌린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다.
이제 내 여인이다. 너도 사랑해주길 바란다.

백범천 : (나레이션) 당신의 여인이겠지.

다카기 : ... (미동없는 범천을 바라보다 책으로 눈을 돌린다.)
어미를 용서하지 않았으니 나 또한 용서치 않았겠구나.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거라. 조금해하지 말고. 네게 시간은 많다.

백범천 : (한동안 다카기를 바라보다, 등을 돌려 나가려 한다.)

다카기 : 잠깐.

백범천 : (멈춰서, 다카기를 돌아본다.)

다카기 : 네게 줄 것이 있다.

백범천 : (다카기를 바라본다.)

두 사람을 엿보는 듯, 서재 창문으로 카메라 이동되고 어두운 다카기 저택을 카메라가 한 바퀴 돌며 보여준 뒤 화면이 전환된다.

#11 요정의 후원

후원을 거니는 사기 앞에 이원조가 불쑥 나타난다.

얼굴은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듯 탕탕 부어있다. 멧찍은 웃음을 짓는 원조. 이를 귀

엿다는 듯 바라보는 사기. 하지만 그 미소에는 쓸쓸함이 깃들여 있다.
안타까운 눈빛으로 사기를 바라보는 원조. 사기를 향해 무언가 말하는데,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묻혀 시청자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오로지 사기만이 알아듣고 충격 받
은 표정을 짓다 이내 울음을 터트린다. 그런 사기를 끌어안는 원조.
두 사람을 비추는 카메라가 하늘 높이 올라가며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을 함께 비춰
준다. 화면이 전환된다.

#12 다카기의 서재.

서재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는 범천.

(회상) 다카기 : 네게 줄 것이 있다.

범천의 손에 쪽지가 쥐어져있다.
쪽지를 으스러질 듯 주먹으로 쥐는 범천.
그 표정이 괴로운 듯 복잡한 심정을 비춘다.

끼익, 끼익, 복도를 걷는 음산한 소리와 함께 다카기 저택을 비추는 화면이 어두워
지며 1화 종료.

제 1화 끝.

[제 2화]

회상 시작.

1919년.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보여준다.
녹색빛이 진한 여름이다.
시원한 계곡물이 펼쳐진 산자락, 멀리서 서당과 계곡을 한 화면에 잡으며 계곡 쪽
으로 화면 클로즈업.

#1 서당 근처의 산자락.

서당을 가지 않은 범천. 한 두 번이 아닌 양 여유롭게 냇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

범천의 등 뒤로 꼬마의 작은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원조 : 또 안갔구나?

백범천 : 어딜?

이원조 : 알면서.

짓궂은 표정을 주고받는다.

이원조 : (소매를 걷고 양팔을 빙빙 돌린다.) 오늘은 좀 살벌하게 갈거야.

백범천 : 어쭈? 원조 겁쟁이님이 웬 허세?

이원조 : 날 지금까지의 원조로 보면 섭하지.

백범천 : 질 것 같지 않은데?

이원조 : (가슴 뻥뻥하게 바람을 잔뜩 불어넣으며) 넌 분명히 나한테 진다.

신호라도 한 듯 둘이 분주히 돌을 집는다.

침병침병 돌던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린다.

두 사내아이의 비명 같은 웃음소리, 유쾌하게 노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서당까지 찌렁찌렁 울리는 웃음소리에 제자들도, 스승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내젓고 만다.

경쾌한 BGM과 함께 두 아이는 결국 우르르 몰려간 학생들에 의해 서당으로 잡혀온다.

이원조 : (덩치 큰 선배의 손에 잡혀 끌려가고 있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백범천 : (마찬가지로 끌려가고 있다.) 하다만 내기 가지고 그렇게 집착해야겠어?

이원조 : 내가 내 기분을 알아?

백범천 : 아니, 난 100전 99승이라서. 알고 싶지도 않네요.

이원조 : (키득키득 웃으며) 최고의 별칙을 내려주마.

백범천 : 착한 내가 받아줄게. 그 별칙이라는 거.

#2 밤. 신목이 있던 자리의 폐허.

어두운 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다.

앞뒤로 스산한 풀밭이 펼쳐져 있다. 달도 뜨지 않은 밤이라 바람에 풀잎 스치는 바스락 소리조차 으스스하다.

그 풀밭 사이로 아연한 표정의 범천과 약간 파랗게 질렸지만 의기양양한 표정의 원조가 서있다. 작은 꼬마들은 각자가 들고 있는 자그마한 등불 두개로 서로 의지하고 있지만, 곧 헤어져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

백범천 :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이원조 : 사나이가 말을 꺼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하는 법.

백범천 : 에라이 꼬추떨어질 놈아.

이원조 : 아니 무슨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백범천 : 그래서, 저기 다녀오면 되는거야?

범천이 가리키는 곳에는 불타버린 거대한 신목의 으스스한 실루엣과
무당의 집터임을 알려주는 색색의 리본이 묶인 돌탑이 보인다.
그 뒤로 폐허가 된 집이 한 채 있다.

백범천 : (나레이션) 예전 이곳에는 모두가 천하게 여기던 무당이 한 명 살았다.
뭘, 천하게 여겼다곤 했지만 사실 다같이 어울려 잘 살았었잖아. 평화롭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른들 말로는 그 무당이 살던 터가 맥 자리라고 했던
가? 기운이 모이는 신성한 터라고 했었지. 산의 기운이 모이는 터 말야.

예전, 무당이 살았을 때의 모습이 회상으로 아련하게 그려진다.

이원조 : (나레이션) 그래서였을거야.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무당이 지키던
나무를 다 태워버렸어. 그리고 산의 기운을 끊어버린다면 집도, 돌탑도,
모시던 부처도 모두 부숴버렸다고 했지.

울부짖는 무당, 잔혹하게 폭행하는 일본 군인들의 모습이 회상된다.

백범천 : (나레이션) 그게, 사람으로 치자면 대동맥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라더라.

카메라, 다시 현실의 범천과 원조를 보여준다.

백범천 : 그래서..그 무당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원조 : 네가 신경쓸 바 아니지. (폐허를 가리키며) 넌 저기 들어가서 증거를 하나
가져오면 돼.

백범천 : 넌 겁도 많은 주제에 도대체 이런건 어떻게 생각해내는거니?
(원망스럽게) 낮에 해도 되잖아, 이런 거. 꼭 밤에 시켜야겠어?

이원조 : 어..어떡하니, 내가 상상력이 풍부한걸. 이미 왔으니까 하자, 응?

백범천 : 착한 내가 어울려준다.

투덜투덜 한숨쉬며 폐허 쪽으로 걸어가는 범천.

금새 원조 혼자 남겨진다.

이원조 : (멀어지는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등불을 내려다본다.)

(목소리가 떨어온다.) 가..같이 가자고 할 걸 그랬나.

원조를 비추는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어두운 들판에 작은 등불 하나가 스산히 서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3 불타버린 무당의 집.

범천, 조심스레 불탄 신목 근처를 지난다. 거대한 나무가 불에 타 죽어있는 모습이 가까이서 보니 더 무시무시하다. 나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범천, 귀를 막으며 크게 심호흡한다. 빠른 걸음으로 나무를 지나 폐허 쪽으로 다가가는 범천에게 무언가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잔뜩 예민해져있어서 그 움직임이 거슬리는 범천.

백범천 : 뭐지? 토끼인가?

주의 깊게 움직임을 쫓는다.

범천 : 거슬리니까, 뭔지 확인하겠어.

(떨리는 자신의 다리를 때리며) 절대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다.

내 꼬추는 장식이 아니다. 사나이 백범천, 힘내라 백범천.

그 때 바로 뒤편에서 움직임을 느낀 범천.

백범천 : 우아아아아아!!!!!!!!!!!!!! (괴성과 함께 뒤를 휙 돌아서 덮친다.)

사기 : 까아아아아아!!!!!!!!!!

범천의 작은 등불이 사기를 비춘다.

토끼같은 짐승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임을 깨닫고 더욱 무서워진 범천.

백범천 : 뭐,뭐,뭐냐? 구..구..구..귀..귀신? 무무무무무무당이야?

이미 범천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린다.

이내, 무당이라기엔 너무 작은 소녀임을 깨닫는다.

백범천 : 너,너,너,너 뭐야. 도,도,도,도,도깨비야?

사기 : (물끄러미 고개를 들어 범천을 바라본다. 범천이 말을 더듬는 것이 재미있는 모양이다. 불임성있는 미소를 짓는다.)

백범천 : 말,말,말못해?우리말..우리..우리말 못해?

사기 : (의아하다는 표정.)

백범천 : (홍분이 점차 가라앉는다.) (이 녀석..나를 홀리려는 도깨비의 수작인가?)

사기 : (품에서 작은 비녀를 하나 꺼내더니 바닥에 글씨를 쓴다.)

백범천 : 나는..사기..사기? 네 이름이 사기야?

사기 :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또 다시 글을 쓴다.)

백범천 : 무..당의..딸. 아아. 너, 사람이구나.

긴장이 풀린 범천이 털썩 주저앉는다.

백범천 : (표정만 근엄하게)아,이건 내가 너무 많이 걸어서 그만. 오라버니 좀 쉴게.
너, 계속 글로 써봐.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기대에 찬 표정으로 범천을 바라보는 사기. 모습은 추레하지만 표정은 해맑다.
작은 등불 하나를 의지하고 서로 바라보는 사기와 범천의 모습.

#4 신목이 있던 자리의 폐허.

원조, 의기양양 범천을 보내긴 했는데 왠지 후회된다.

못난 다리는 자꾸만 주인의 의사를 배반하고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만 하고
바람에 스치는 작은 풀잎 소리에도 원조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원조 : 범천이 따라갈걸 그냥..아으..아오오..아으으..

추워서 그런가. 막 쉬가 마렵고, 막...(바지춤을 손으로 잡고 동동 구른다.)

그 때, 예민해진 원조의 귀에 누군가가 풀잎을 헤치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원조, 범천인줄 알고 소리 높여 부르려는 찰나, 그것이 한 명의 소리가 아님을 깨닫는다.

덜컥 겁에 질린 원조. 어딘가 숨을 곳을 찾지만 주변은 온통 낮은 수풀뿐이다.

위기 상황이 되자 원조는 이상하리만치 자신이 냉정해졌음을 깨닫는다.

원조는 자신이 작은 아이임을 되새기며, 조용하고 빠르게 수풀 사이를 지나 나무가 있는 숲 쪽으로 다가간다. 그렇게 큰 나무를 골라 그 뒤편으로 숨었다.

원조가 있던 수풀 사이로 서너 명의 남성이 나타났다. 남성들은 원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잠시 멈춰서더니 무언가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눈다.

멀리서 소리는 듣지 못하나, 수상해 보이는 그들의 행동과 얼굴을 푹푹히 봐두는 원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사기의 손을 잡고 범천이 돌아왔다. 원조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의아해하는 범천.

백범천 : 사기, 내 친구가 여기 있었는데. 안보이네.

사기 :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백범천 : 이 녀석. 분명 혼자있기 무서워서 집에 돌아간걸거야.

사내놈도 아니라니까. 너보다 못한 놈이야, 사기.

사기 : (재미있다는 듯이 범천을 바라본다.)

백범천 : 너는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 몇 달을 살았는데 말야. 그치?

(사기의 표정을 보더니 움찔하며) 아니, 아니 너네 집 욕하는거 아냐, 절대.

그 왜 뭐냐 누가 봐도 무시무시하잖어.

사기 : (싱긋 웃는다.)

백범천 : 원조 자식은 포기해. 그래도 내가 너네 집에 갔다가 왔다는거 증명해줘야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일이라도 또 만나러갈게. 나 기다려야해? 어디까지 말고?

사기 : (걱정 말라는 듯이 범천의 손을 잡는다.)

백범천 : (얼굴 빨개지며) 야, 야, 이러는 거 아니다.

투닥투닥하며 멀어지는 둘.

그 뒷모습을 수풀 속에 숨어있던 사내들이 하나 둘 일어나 쳐다본다.

음산한 광경이다.

그리고 원조는 멀찍이 나무 뒤에서 숨을 들이 삼키며 그 광경을 모두 보고 있었다.

친구들이 죽을 뻔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달 없는 어두운 밤이 끝나가며 멀리서 파랗게 동트는 하늘이 비춰진다.

회상 끝.

#5 오전 11시 경. 다카기 저택 근처 골목. 자위대로 향하는 길.

차 안 뒷좌석에 다카기와 범천이 나란히 타고 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기운만이 차 안에 감돈다.

자위대 건물 앞에 차가 선다.
범천과 다카기가 내리고 기사는 차를 주차시키러 이동한다.
자위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두사람.

#6 자위대 건물 내, 경시정 사무실.

와타나베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등을 맞는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에는 서류 한 장 없다.

와타나베 : 어서 오십시오. 다카기 선생, 그리고 다카기 군. 편하게 앉으시죠.

백범천 : (사무실 가운데 소파에 옆에 선다.) 다카기 토라우미라고 합니다.

와타나베 : 그래요, 그래. 군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잠시 뿐일 테니 말이야.

(상석에 앉는다.)

이제부터는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걸세. 제대로 호칭으로 불러 줄 테니.

백범천 :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카기 : (편히 소파에 몸을 맡으며) 천천히 말씀 나누시게나.

와타나베 : 아버님은 개의치 마십시오.(낄낄 웃는다.)

(범천 바라보며) 좋은 아버님을 두셨네. 내가 보증하지.

다카기 : (농담조) 경시정님이 언제부터 저를 좋게 보셨다고.

와타나베 : 거보게, 유머감각하며.

백범천 : (무뚝뚝하다.) 제게 말기실 일이 있다고..

와타나베 : 그래. 아주 중요한 일이지. 뭐, 자네 아버지를 보아, 자네의 모든 점을
신용할 수 있겠지만...하지만 딱 한 가지가 걸리긴 해.

백범천 : 그 한 가지가 뭔지 알 것 같군요.

와타나베 : 똑똑한 친구로군.

백범천 : 나는 위대한 천황폐하로부터 새 이름을 하사받았습니다. 모든 게 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도 못미더우신가보군요.

와타나베 :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근본이 중요한 것이지. 이름은 근본 위에 덧
씌우는 가면 같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다카기 군?

다카기 : 팽팽한 신경전 참 재미있군요. 그 녀석은 누가 뭐래도 내 자랑스러운 아들
인데, 너무 괴롭히진 마십시오, 경시정님.

와타나베 : 직업이 직업인만큼 말입니다, 선생. (능글맞게 웃는다.)

그나저나 일부러 식사시간에 맞춰 모셨지요, 여러분.

제가 끝내주는 한 끼 대접하지요.

와타나베가 앞장서 나가고, 범천과 다카기가 그 뒤를 따른다.

나가기 직전 다카기가 범천의 등을 가볍게 두드린다.

바라보는 범천에게 눈웃음을 지으며 나가는 다카기. 문 앞에서 잠시 멍하니 멈춰있던 범천, 결심한 듯 따라 나간다.

#7 자위대 근처 거리.

아침부터 범천을 미행했던 이원조.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었다. 다카기와 범천이 함께 들어간 곳이 자위대라는 사실에 경악한다. 자위대 건물 옆 다방에서 범천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다카기, 와타나베와 함께 나오자 귀찮다는 듯 얼굴을 찌푸린다. 이내 빠른 걸음으로 다방 밖을 나와 세 사람이 가는 길을 확인한 뒤, 골목을 돌아 들어간다. 세 사람의 측면으로 나와 아는 척을 하려는 목적이다.

와타나베 : 근처에 있는 식당이니만큼, 천천히 산책하시죠. 이야기도 나눌 겸.

와타나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리가 순간 소란스러워진다.
젊은 순사 둘이, 조선인 노인을 끌고 오는 중이다. 서로 일본어로 욕설을 주고받는다. 노인의 반항이 거세다.

경시정 일행을 보더니 고개를 숙이는 순사들.

와타나베 : 항상 수고가 많네. (노인을 힐끗 보며) 뭐. 이유가 있으니 잡아왔겠지.

순사 1 : 네, 경시정님. 조사할 필요가 있어 연행 중입니다.

순사 2 : 이런 야만스러운 사람들에게 신사적으로 대하자니 참 짜증나네요, 하하하.

와타나베 : 조선인들은 자네 같은 사람들과는 근본부터 다르지 않나.

이것들을 상대하는 것도 다 천황폐하를 위한 업무의 일환이니 조금만 더 고생해주게나.

노인 :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나.

(경시정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더러운 일본 놈들.

와타나베가 싸늘하게 노인을 쳐다보는 찰나, 범천의 손이 허공을 가른다.

철썩, 하고 노인의 뺨이 후려쳐진다. 뺨을 때린 것은 범천이다.

노인 : 이..후레자식 같으니!

백범천 : (덤덤히 노인을 바라본다.)

노인 : 네 녀석, 너희 일본 놈들은 애미, 애비도 없더냐?

백범천 : (한국어) 없소.

노인 : ...뭐? (한국어로 말하는 범천에게 아연한 표정)

이원조 : 잠깐 스타아아아아압!!!!!!

그 때를 맞춰 옆 골목에서 요란하게 등장하는 이원조.

이원조 : (목청높여) 아니, 이게 누구야? 나의 옛 친구 범천이 아닌가?

(범천에게 오버하며 팔을 두른다.) 돌아왔으면 이 친구에게 돌아왔다고 말을
해야 할 것 아냐? 섭섭하게스리~

범천, 뉘이 나간 얼굴로 원조를 뵈히 쳐다본다.

백범천 : 뭐야, 너는.

이원조 : 앵?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그렇지, 날 못 알아본다고?

나는 너처럼 곱같이 등치만 크지 않았어. 어린 시절 그대~로 미소년의 모습
그대~로 컸단 말이야. 날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 범천이.

백범천 : 못 알아보겠는데.

이원조 : 나, 나, 나란 말이야.

고집스럽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원조를 범천, 싸늘하게 쳐다본다.

그 와중에 거리가 소란스러워지자 곤란한 와타나베.

그런 와타나베를 눈치채고 다카기가 소란을 수습하고자 한다.

다카기 : 토라우미. 옛날에 네가 살았던 동네이니 네 친구도 당연히 있지 않겠니?

널 보니 반가운가보다.

백범천 : (미심쩍은 눈으로 다카기를 쳐다본다.) 전 친구 따위 관심 없습니다.

그보다 저희 경시정님과 식사하러가던 참이었을 텐데요.

와타나베 : 그래, 소란의 원인을 제공해서 미안하네.

(순사에게 입이 막혀 끌려가는 노인의 뒷 모습을 흘려본다.)

뭐,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지만...그나저나 자네 괜찮나?

친구가 꽤 반가워하는 모양이군.

이원조 : 반갑다마다요~ 너~~무 반가워서 이 친구를 그냥 반 죽여 놓고 싶네.

(범천의 머리를 누르고 속삭인다.) 더 소란 피워서 저 영감에게 밋보이게 해
줄까?

백범천 : (원조를 노려본다.)

다카기 : 자, 자. 간만에 만난 친구를 홀대하면 쓰나. 같이 가서 시간 보내고

오거라, 토라우미.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와타나베 : 그래. 자네 아버님과 이야기 나눌 터이니 자네는 이만 가보게.

범천, 마지못해 가볍게 목례하고 자리를 빠져나간다. 요란한 행색으로 이원조 뒤따라간다. 그런 둘을 다카기와 와타나베가 대수롭지 않게 보고난 뒤 다시 식당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8 요정으로 향하는 길.

범천이 앞장서고 원조가 따른다. 범천을 가볍게 쫓아가서 앞을 막아서는 원조.

이원조 : 이대로 내빼려고?

백범천 : (노려보며) 너, 이원조지?

이원조 : 잘 알고 있네.

백범천 : 뭐야. 무슨일인데.

이원조 : 친구가 친구를 만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백범천 : (한숨쉬며) 너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이원조 : 너, 변했구나.

백범천 : 원래 이런 놈이었어. 나도, 너도 몰랐을 뿐이다.

이원조 : 오늘만 어울려줘. 그 후는 네게 맡길게. 네 생각에 따르겠다고.

백범천 : 나같은 놈하고 어울리지 마.

이원조 : 사기도 그렇게 생각할까?

백범천 : 뭐..?

이원조 : 만나러 가자구. 그 아이.

#9 요정 내 후원.

후원의 꽃을 바라보는 여인의 뒷모습을 두 남자가 쳐다본다.

여인은 사기이고, 두 남자는 범천과 원조이다.

사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범천. 처음으로 무뚝뚝한 표정이 풀어지고 있다.

그 표정은 이내 서글픈 표정으로 변한다.

인기척을 느끼고 사기가 고개를 돌린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잠시잠깐 눈부시게 비추었다.

세월이 지나, 어엿한 여인이 된 사기. 그녀가 범천을 향해 미소 지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그를 알아보는 사기를 보며 범천은 미소 지을 수 없다.

그 뒤에서 원조가 조용히 둘을 지켜본다.

2화초에 나왔던 회상 중, 어두운 밤, 풀숲에서 서로를 지켜보던 어린 세 사람의 모습이 현실과 겹쳐 보이며, 주제곡이 나오면서 2화 종료.

제 2화 끝.